

André Lorant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생하여 1968년 소르본느 대학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고 렌느 대학 조교수 및 오토-브르타뉴 대학 정교수, 파리 12대학 현대문학과 학과장을 거쳐 현재 파리 12 대학 교수로 재직. 주요저서로는 두 권의 박사학위 논문인 *Les Parents pauvres d'Honoré de Balzac, étude historique, critique et littéraire*(1967) 과 *Le Compromis austro-hongrois de 1867 et l'opinion française*(1971)를 비롯하여, *Orientations étrangères chez André Malraux*(1971), *Hamlet et la pensée mythique*(1982), *Shakespeare et Döblin*(1983) 외 다수가 있다.

『상어가죽』

앙드레 로랑

작품 소개: 세 토막으로 이루어진 구조

발작의 대변인 샬르 Philarète Chasles는 1831년 9월 『철학 소설 romans et contes philosophiques』의 서문에서, “발작은 우리의 시대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무기를 차용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 바, 지나칠 경우 예술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광적인 창작열, 악의에 찬 아이러니, 또 암울하고 강렬하면서도 선명한 색채의 사용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우리는 각기 ‘부적 Le Talisman’, ‘냉정한 여인 La femme sans coeur’, ‘임종의 고통 L'agonie’이라고 이름 붙여진 결정판의 세 부분을 기본 자료로 언급하면서 이 작품의 특징적인 윤곽을 쫓아가보고자 한다.

방탕한 삶으로 재산을 탕진한 27세의 젊은이 라파엘 드 발랑탱 Raphaël de Valentin은 마지막 남은 20프랑짜리 금화를 도박장에서 잃고는 쉼노강에 몸을 던지려 한다. 죽음을 실행에 옮기기 전 배고픔에 지친 그는 볼페르가 부근의 골동품상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한 노인으로부터 마술적 힘을 가진 상어가죽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 소유자의 바램들을 이루어준 즉시 그만큼 넓이가 줄어들어 부적의 일종이었다. 일상적 현실로부터 등장한 이 환상적인 물건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곧 가죽의 줄어듦이 그 소유자의 삶이 끝나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샬르의 표현대로 ‘권태와 사치에 미쳐버린 문명’, 빈사의 사회가 끝없이 강화시키는 타락, 참화의 주된 원인을 발작은 사람들의 사상과 욕망에서 발견한다. 라파엘은 마술가죽을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이 흥분으로 떨리고 있음을 느낀

다. 그는 기자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그를 과거에는 범죄자였던 금융가 타이유페Taillefer의 연회에 데리고 간다. 아킬리나 Aquilina, 유프라지 Euphrasie라는 빠리의 고급 창녀들까지 끼어들게 된 이 모임은 통음난무의 술잔치로 전락하고, 술로 인해 혀가 풀린 라파엘은 신문기자 에밀 블롱데 Emile Blondet에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설의 2부를 이룬다.

제 2부 '냉정한 여인'은 아버지의 압제에 고통받던 라파엘의 청소년기의 이야기이다. 라파엘은 발작이 그랬던 것처럼 레디기에르 Lesdiguières가의 고미다락방에 살며, 『의지론 Traité de la volonté』을 쓰던 그 시절을 회고한다. 가난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어머니의 품같은 학문 속으로 피신했던 라파엘은 자상한 뿔린느 Pauline의 보살핌을 받는다.

라스띠냐크 Rastignac과의 만남은 그의 삶에 전환점이 된다. 이 멋쟁이 유혹자는 라파엘을 피도라 백작부인 Comtesse Foedora에게 소개하는데, 그녀는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젊은 여인으로서 라파엘이 찾던 이상적인 여인이었다. 라파엘은 이 냉담한 여인을 정복할 수 없음에 절망하고 라스띠냐크의 충고를 좇아 과도한 방탕에 자신을 맡긴다. 라파엘의 자전적인 이 이야기는, 술잔치 끝의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새벽녘에야 끝이 난다. 그때, 공중인 까르도 Cardot가 향연에 온 사람들과 함께 있던 라파엘에게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온다. 가족의 주인인 라파엘은 그것이 줄어들었음을 알고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된다.

이 잔치는 1830년 10월말의 일이고, 3부인 '임종의 고통'은 12월 초순에 시작된다. 라파엘은 자신의 호사스러운 저택에 칩거하여 자칫 표현되기 쉬운 모든 욕망들을 억누르며 그야말로 수도사와 같은 삶을 영위한다. 어느날 극장에서 그는 창녀 유프라지와 함께 있는 골동품장수를 발견하고, 또 재산을 회복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된 뿔린느와도 재회하게 된다. 그는 뿔린느와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실 이 때문에 죽게 된다. 그가 조언을 구한 과학자들은 상어가 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으며, 그가 도움을 청한 의사들도 라파엘을 최악하게 하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

라파엘은 빠리를 떠나 온천이 있는 도시로 갔다가 이어 오베르뉴 Auvergne의 몽도르 Mont d'or 고원에 있는 작은 호숫가마을에 정착한다. 그러나 무기력하고 적대적인 그곳 사람들에 혐오를 느끼고 낙담하여 다시 빠리로 돌아온 그는 이후로 뿔린스를 만나기를 거부한다. 사랑스런 여인 뿔린스는 라파엘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하인 조나따스 Jonathas와 함께 다이유페의 연회를 연상시키는 잔치를 열지만, 라파엘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며 연회장에서 나가 버린다. 하지만 그는 연인 라파엘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살하려고 하는 뿔린스를 뒤쫓아가게 되는데, 그 절망한 뿔린스의 아름다움이 라파엘의 욕망을 부추긴 탓에, 그는 뿔린스를 가슴에 안은 채 경련을 일으키며 죽는다. 소설의 중심이었던 신비스런 부적은 독자가 책을 덮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 이 소설의 주제는 '우의적 철학 Philosophie allégorique'에 속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시대의 한 비평가는 이렇게 말한다 :

“이러한 환상적인 모습에 가려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비평가들은 상어가죽이 인간의 삶, 즉 사회적 객체로 추상화된 인간의 삶을 표현했음을 간과했다. 묘한 굴곡과 방랑, 뱀처럼 구불구불한 행로와 다양한 형태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삶은 소설의 가장 하찮은 사건 속에도 숨어 있다. 이 작품은 문명이 발생시킨 이기주의를 가차없이 고발하며, 하찮은 대목에서도 극적인 흥미뿐만이 아닌 우의적인 철학을 담고있는 것이다. 라파엘을 보자. 자기보존의 감정이 그에게서 다른 모든 생각을 질식시켜버린다. 결투의 장면에서, 농부의 집에서, 빠리의 저택에서, 똑같은 감정이 그의 정신을 빼앗아버린다. 그 저주스러운 부적에 복종하여 그는 이기주의의 폭발 속에 살고 죽는다. 삶 그 자체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철학 연구』 서문, p.1189

상어가죽과 파우스트의 신화

소설의 처음 부분과 관련하여, 나는 라파엘이 노인으로부터 상어가죽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파우스트적 계약에 좀 더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 동양의 부적에 대한 묘사는 그것이 지니는 우주적 성격을 드러낸다 :

“젊은이는 갑자기 일어서 그가 앉아있던 자리 위편 벽에 걸려있는 여우가죽만한 상어가죽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첫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 가죽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찬 상점 안에 마치 작은 혜성의 빛 같은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다. 이 의심많은 젊은이는 불행할 막아준다는 소위 부적이라는 것을 속으로 비웃으며 그것을 향해 다가섰다. 그래도 당연히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몸을 기울여 가죽의 작은 면들을 차례로 살폈다. 그는 곧 그 이상한 빛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가죽의 검은 결들은 너무나 정성스럽게 닦여 윤이 나고 있었고, 그 불규칙한 줄무늬는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해진 탓에, 가죽의 오물도물한 것들이 그 자체로 흡사 석류석의 결정면들처럼 강렬하게 빛을 반사하는 작은 광원들이 된 것이었다. 그는 이 현상의 이유를 노인에게 수학적으로 설명했다. 노인은 대답대신 교활하게 웃어보일 뿐이었다. 이 우월감을 나타내는 웃음은 우리의 젊은 학자에게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사기행각에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의 수수께끼를 무덤자리까지 가져가기는 원치 않았기에, 마치 새로운 장난감의 비밀을 캐기에 조급한 어린아이처럼 재빨리 가죽을 뒤집었다”

『상어가죽』, p. 86

가죽 뒤에 적힌 말들은 이 계약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즉, 소유자의 생명은 그의 욕망에 따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부적에 적힌 글을 붙여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내가 나를 갖는다면 너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 된다. 신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 원하라, 그러면 너의 욕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의 바램에 대한 지불은 너의 삶으로 치루어질 것이다. 네 삶이 여기 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나는 너의 삶처럼 줄어들 것이다. 나를 원하느냐? 나를 집어들어라. 신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상어가죽』, p.88

노인은 생명력을 아끼는 쪽을 선택했다. 그가 우주를 소유하고 세계의 신비가 자신 앞에 펼쳐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각에 의해서이다. 그와 반대로 라파엘은 종국엔 숙박 속에 죽는다 하더라도 즐기며 살고자 한다.

이 계약의 개념은 파우스트의 신화로부터 비롯된다. 악마와 체결한 계약의 덕으로 죽음을 벗어나 전지전능하게 된 파우스트 박사의 모험 이야기는 이미 16세기부터 유럽을 풍미했다. 영국작가 멜로우 Chr. Marlowe는 이 인물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비극 속에서 그러한 영향을 보여준다. 파우스트는 마술에 열중함으로써 신에게 도전하며 전능을 꿈꾼다 :

“그러한 생각만으로도 나는 자궁심에 가슴이 벅차다. 정령들에게 나의 바램을 들어달라고, 내가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풀게 해 달라고, 나만의 무모한 기도들을 들어달라고 말해 볼까? 나는 정령들이 금을 찾아 인도로 향하기를, 진주의 광택에 홀려 대서양을 파헤치기를, 신대륙의 구석구석에서 왕자에게 걸맞을 요리와 감미로운 과일들을 찾기를 원한다. 그들은 나에게 이국의 현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각 나라 왕들의 비밀을 이야기할 것이며, 청동벽으로 독일을 두르고, 라인강의 거센 물줄기로 위당베르 Wittenberg를 둘러쌀 것이다. 또, 대학을 비단으로 가득 채울 것이고, 학생들은 그것으로 화려하게 웃을 입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가지고 온 황금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나의 고장으로부터 빠르프 Parme의 알렉산더를 내몰고, 모든 국가의 유일한

왕으로 군림할 것이다. 그렇다. 앙베르 Anvers 숲으로 통하는 다리를 지키는 화선만큼이나 훌륭한 신병기를 나의 정신적 노예들로 하여금 발견해내도록 하자! 나의 친구 발데스 Valdès여, 너 꼬르넬리우스Cornélius여, 이리와서 그대들의 기지에 찬 대화로 나를 행복하게 해라.”

『파우스트 박사』, p.15

그는 실추된 천사, 메피스토펠레스의 가호를 빌지만 자신이 하늘로부터 추방된 존재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를 실망시킨다. 하지만 피로 봉인된 계약으로 인해 그는 파우스트를 24년 동안 보살필 각오를 하게 된다. 파우스트는 그와 서약을 하는데,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어 놀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인물의 거의 하잘 것 없는 짓거리들이 아니라, 메피스토펠레스의 마술로 나타난 엘렌 Hélène의 모습에서 그가 느끼는 쾌락에 대한 탐욕이다 :

“저 얼굴! 저것이 그토록 많은 범선들을 출범하게 하고, 트로이의 수많은 고귀한 탐들을 불타게 한 얼굴인가! 헬렌, 저 여인은 키스만으로도 나를 불멸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입술은 영혼을 들이마시는구나. 아! 나의 영혼이 빠져나간다. 자, 헬렌 나의 영혼을 돌려주소. 당신의 입술이 천국이기에 나는 여기 머물겠소. 헬렌 당신 아닌 모든 것은 공허함일 뿐이요.”

『파우스트 박사』, p.109

발작은 1808년에서 1810년 사이에 출간된 스팔 부인의 『독일론 De l'Allemagne』을 통해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부분적으로 읽었다. 또한 루이스 Lewis의 『사제 Le Moine』와 마튀랭 Maturin의 『멜모스 Melmoth』라는 두 권의 ‘암흑소설 roman noir’도 그에게 계약이란 주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루이스의 작품에서 앙브로시오 Ambrosio 사제는 실제로는 그의 누이인 앙토니아 Antonia를 얻기 위해 마술모임에 참석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피가 흐르게 된다. 마튀

탱의 주인공은 방랑자로 잔인하고 가학적이며 기복이 심한 성격인데,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포기한 자와 맺은 계약만이 무덤 속에서의 평화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발작은 아마도 괴테 작품의 초기 번역물들을 접했을 것이다. 그리고 1828년에 출간된 제라르 드 네르발 Gerard de Nerval의 번역본은 분명 주의깊게 읽었던 것 같다. 계약의 의미는 멜로우보다는 괴테에 이르러 한층 심오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파우스트는 절망한 자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메피스토렐레스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주의 섭리”란 비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메피스토렐레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인 결코 충족되지 않는 향락을 갈망한다 :

“파우스트 -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 가없는 악마야. 너같은 자는 고귀한 영감을 가진 인간의 영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만족될 수 없는 음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수은처럼 사람들의 수중을 돌아다니는 하찮은 금, 결코 이길 수 없는 놀이, 내 팔 안에서 내 이웃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지어 보이는 헤쁜 여자, 유성처럼 사라져버릴 그 잘난 명예. 나에게 나무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썩지 않는 과일을, 항상 새로운 푸르름으로 덮이는 나무들을 보여다오.

메피스토렐레스 -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서 별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러한 보물들을 줄 수 있다. 친구여, 안전하게 방탕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파우스트- 한 순간이라도 휴식을 위해 깃털 침대에 몸을 눕힐 수 있다면!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도록 내게 발림말을 늘어놓을 수 있다면! 비록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나를 향락으로 유혹할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내기를 걸겠다.”

『파우스트 박사』, p. 77

피로 이론 서약은 터무니없는 예식이 되고, 파우스트는 쾌락의 추

구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부터 악마의 희생물이 된다.

우리는 이제 발작의 텍스트와 괴테의 텍스트를 비교할 수 있다.

파우스트는 말한다 :

“즐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너는 알 것이다. 나는 소동과 가장 고통스러운 쾌락과, 절망을 함축한 평화, 증오를 간직한 사랑, 이러한 것들에 몰두할 것이다. 과학에 대한 열병에서 치유된 나의 가슴은 어떠한 고통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과제, 그것을 나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집결시킬 것이다. 나는 나의 정신으로 하여금 인류가 지닌 가장 숭고하고 은밀한 것을 발견하도록 할 것이며, 인류의 모든 선과 악을 나의 심장으로 하여금 느끼게 할 것이다. 나는 온 인류로 확장되어서 그것과 함께 부서져버리고자 한다.”

『파우스트 박사』, p. 79

반면에 라파엘은 말한다 :

“나는 포효하는 광적인 방탕이 우리르 사두마차에 실어서 세상너머 미지의 해변으로 데려다 주기를 바란다. 나는 영혼들이 상승 혹은 하강하는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든 진흙 속으로 가라앉든 상관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불길한 능력에게 내가 하나의 즐거움 속에서 모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명한다. 그렇다. 나는 그로 인해 죽게 될 마지막 포옹 속에서도 땅과 하늘의 즐거움을 끌어안고자 한다.”

『상어가죽』, p. 91

파우스트에게 있어 쾌락의 추구는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이 인간이란 소유주를 탐구해 나가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자 :

“메피스토렐레스 - 알겠다. 나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는 그 점을 열려했다. 나는 내가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시인과 교류해라. 그가 상상에 자신을 내맡기도록 내버려두고, 너의 머릿속에 가장 고귀하고 명예로운 것들, 사자의 용기와 사슴의 민첩함, 이태리인의 굵은 피와 북구인들의 강인함을 쌓아올려라. 시인으로 하여금 영혼의 위대함과 섬세함을 조화시키는, 젊은이의 굵은 열정을 소유하는 비결을 발견하도록 해라. 나는 그러한 사람을 알고 싶은데 그를 소우주씨 Monsieur Microcosmos라 부를 것이다”

『파우스트 박사』, p. 79-80

이에 반해 라파엘의 쾌락추구는 좀더 제한된 이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골동품상의 통찰력에 대해서는 이 소설보다 3년 후에 나온 『철학연구 Etudes philosophiques』에 실린 펠릭스 다뱅 Félix Davin의 서문이 설명을 해 줄 것이다 :

“발작씨가 사유를 인간파괴의, 결과적으로 사회파괴의 주요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는 모든 사상, 모든 감정을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사회가 낳은 사상의 교묘한 술책에 흥분한 본능은, 인간에게 급작스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에 가까운 연속적인 함몰로 인간을 몰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형성시킨 그대로의 사유는 정열이 제공한 일시적 힘에 의해 증가되면, 인간에게 독약, 비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 장자끄의 말을 흉내내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생각하는 인간은 타락한 동물인 것이다. 필라레뜨 살르는 말한다: “확실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여건은 없다. 인간은 문명화됨에 따라 자살을 한다. 개인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지능이 가지고 온 참화와 무질서, 이것이 발작씨가 그의 작품 속에 담고있는 사상이다.”

『철학 연구』, p. 214

자신의 생명력을 아끼는 그 골동품상의 모습은 소설가 자신의 형상화가 아닐까? 발작은 『상어가죽』의 초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

“시인에게 또 철학자라 해야 맞을 작가들에게는 일찌기 들어본 바 없는 정신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그것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 2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우주를 자신의 두뇌 속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또, 인간의 뇌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들을 철폐시키는 부적이 아닐까? 앞으로도 과학은 이 두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사이에서 망설일 것이다. 어쨌든 영감이 시인에게 꿈속에서 보는 환상과 같은 변화무쌍함을 펼쳐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묘한 능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의 자연스러운 놀이가 꿈일 것이다”

『상어가죽』, p. 52-53

전능함은 골동품 상의 머릿속, 상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발작의 초기 소설 중 가장 독특한 인물들 중의 하나인 백살노인 Le centenaire은 이 꿈을 생명수의 힘으로 몸소 체현한다 :

“장미 십자회는 인간의 생명을 더욱 길게, 거의 영원하도록 하는 소위 생명수를 발견하고자 연구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발견해내서 그 처방을 통해 이 세상만큼이나 지속될 삶을 얻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특별한 발견들로부터 아무것도 잃지 않는 자를. 모든 능력들을 습득하고, 온 지구를 두루 돌아다니며, 그 가장 작은 세부까지 알아내고, 그 자신 인류와 자연의 고문서 보관소가 되는 이를. 조사를 피해 모든 나라에 숨을 수 있고, 정확히 지리를 알기에 공기처럼 자유롭게, 도시들이 얽혀있는 지하통로를 통해 추적될 뿌리치는 자를. 때로는 거지의 누더

기를 걸치고 그 다음날은 훌륭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값비싼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이를. 착한 이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악한 이들은 멸하는 이를. 이러한 사람은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신입니다. 그는 손바닥 안에 온갖 통치의 비법을 가지고 있고, 각 국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종교가, 인간이, 제도가 갖추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상의 헛된 논쟁들을 구름 위에서 보듯 내려다 보고, 세상사람들 사이를 태양처럼 떠돌며, 마침내는 수세기를 죽지 않고 보내게 됩니다” 『백살노인』, pp. 77-78

백살노인이 사는 동굴의 묘사는 이 초기작품을 골동품상의 묘사와 연결짓도록 한다. 자신이 감금해 놓은 소녀의 질문에 노인은 이렇게 답한다 :

“그것은 잔다르크를 화형시켰던 장작더미의 일부이다. 옆에 있는 이것은 바스띠유감옥을 짓고 남은 벽돌들이고, 저쪽의 저 두개골은 라바이악의 것이다. 저 책은 크롬웰의 성경, 저 화승총은 샤를르 9세가 지녔던 것, 저기 세계 전도가 보이느냐? 저것은 위대한 콜롬부스의 것이다. 여기 이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면사포와 그녀의 여동생 마리의 목걸이이다. 루이 14세의 승마용 채찍, ‘지므네스 Ximenès’의 칼, 리슐리외 Richelieu경의 펜, 그런데 이것은 그 가없는 ‘몽모랑씨 Montmorency’를 처형하라고 지시할 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람프 Mirame’에게 편지를 쓸 때 사용한 것이다. 자, 이것은 썩쓰뜨 켁의 반지다. 결국 내가 본 모든 것은 지나간 수세기와 나의 친구들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품들일 뿐이다.”

『백살노인』, pp.170-171

이것은 우리의 흥미를 끄는 『상어가죽』에 나오는 한 부분의 초고에 불과하다.

자전적인 흥미

소설의 2부를 다름에 있어 나는 명백히 자전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

“곤궁의 냄새를 풍기며 그 주인인 지식인을 부르던, 누렇게 때가 묻은 벽을 지닌 고미다락 방만큼 끔찍한 것은 없었다. 지붕의 이음새가 군데군데 내려앉아서, 떨어져나간 기와의 틈새로 하늘이 보였다. 탁자, 침대 그리고 의자 몇개를 놓으면 딱 차버리는 방 한구석에 겨우 피아노를 놓을 수 있었다. 베니스의 하수도에나 어울릴 그 우리같은 방에 가구를 들여놓을 만큼도 부유하지 못했던 가없는 여인은 그 방에 세를 들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나에게는 소중한 물건들을 팔아야 했던 일을 제외하고는 여주인과 합의를 보아 그 다음날로 그 곳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그 공중에 뜬 묘지와 같은 곳에서 3년 가까이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앉고 쉬없이, 그것도 아주 즐거이 공부했다. 그만큼 연구는 인간 삶의 가장 훌륭한 과제이자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학자에게 절대 필요한 침묵과 안정은 나에게 사랑만큼이나 매혹적이고 부드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사고하는 힘을 기르고, 사상을 찾고, 과학을 조용히 응시하는 일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지력을 요구하는 모든 것이 제공하는 말할 수 없는 매혹을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의 신비로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적 비유를 들어야만 한다. 바위들, 꽃들, 나무들로 둘러싸인 맑은 호수에서 홀로 미풍을 맞으며 수영을 하는 즐거움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비유가 무지한 이들에게, 내 영혼이 알 수 없는 광채 속에 잠겨서 혼돈스러운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때나 혹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나의 고동치는 뇌속으로 이미지들이 흘러 들 때 내가 느끼는 그 행복감을 미약하나마 짐작하게 해줄 것이다. 아침나절의 태양처럼 인간의 추상적 영역에 떠올라서는 아이처럼 자라나 사춘기와 서서히 청

년기를 맞는 사상을 바라보는 일은 지상의 쾌락을 초월한 것이고, 차라리 신적이라 할 성격의 것이다. 연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 일종의 마술을 행한다. 내가 글을 쓰는 보잘 것 없는 책상, 그것을 덮은 양가죽, 피아노, 침대, 안락의자, 벽지의 기이한 무늬, 가구들,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진 나의 친구들이 되어, 조용히 나의 미래에 격려를 보낸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내 영혼을 전달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방안의 휘어진 쇠시리를 따라 눈길을 옮기다 보면 종종 나의 체계의 새로운 전개나 놀라운 증거, 혹은 거의 표현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나타내줄 만한 단어들을 접하곤 했다. 주위를 둘러싼 사물들을 응시해 온 결과로 나는 그 각각의 얼굴을 알 수 있었고, 성격 또한 알 수 있었으며, 대화도 종종 나눌 정도였다. 태양이 지붕 위에서 나의 좁은 창을 통해 살그러니 빛을 던질 때면 사물들은 붉게 물드거나 창백해지거나 반짝이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면서 언제나 새로운 효과로 나를 놀라게 하곤 했다. 세상사에서 벗어난 고독한 삶의 이러한 작은 사건들은 죄수에게 주어진 위안과 같았다. 내가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한 체계 속에 갇혀버렸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난 영광스런 삶을 기대하며 견뎌내지 않았던가! 매번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나는 어느날엔가 나의 머리결을 쓰다듬으며, 잘 참았어요, 가엾은 천사, 하고 감동에 젖어 말할 아름다운 푸른 눈의 우아하고 부유한 여인의 부드러운 손등에 키스를 했다.”

『상어가죽』, pp.145-146

발작은 그의 대변인 펠릭스 다벵에게 몇몇 페이지들은 자전적인 것임을 공표하도록 허락했다 :

“발작이 아버지의 뜻으로 비롯된 곤궁 속에서 시인의 소명에 위협을 느끼던 1818년에서 1820년에 걸친 시기가 『상어가죽』에서의 라파엘의 이야기다. 발작은 아르스날 도서관 근처의

지붕밀방에 기거하며 고대와 중세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의 철학자들과 의사들이 인간의 두뇌에 대해 남긴 작품들을 요약하고 비교분석하며 씩없이 연구했다.”

「철학 연구」, p.1203

솔레 R. Chollet와 귀즈 R. Guise에 의해 블레이아드판으로 출간된 『작품집 Oeuvres diverses』의 첫 권은 이러한 증언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의지론 Théorie de la volonté』을 쓰기 위해 그가 적은 메모들은 아마 영원히 소실된 듯 하지만 『영혼불멸성연구 Discours de l'immortalité de l'âme』에 대한 중요부분들은 그래도 접할 수 있다. 여기서 발작은 내면적 사고, 두뇌기능의 자율성, 또 지방, 관습, 기후에 따른 사상과 감정의 형성이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또, 『백살노인』에서 소설적인 형태로 발전시켜나갈 최면술의 주제에까지도 접근하고 있다. 그는 꿈이란 현상과 기도의 영적인 비약 현상에 대해서도 숙고한다. 기이하게도 『상어가죽』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소설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

환멸이란 주제

작품의 기본적 구상을 언급하고 그 철학적, 자전적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지금, 우리는 발작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격화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의해 잠식되고, 무력감, 권태, 피로의 먹이가 된 사회현실을 허구의 형태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인 방법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소설 속에 나타난 조각난 이미지들에 충격을 받았다. 라파엘은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소설 앞부분에서는 익명으로 나타난다 :

“그 이름 모를 청년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필러이는 찢어진 깃발처럼 그의 머릿속을 조각조각 스쳐가는 수천가지의 비슷 비슷한 생각들에 괴로워했다.” 「상어가죽」, p. 67

나는 이 문장이 야기시키는 나폴레옹적인 반항에 대해 고집하지는 않겠다. 라파엘은 그나름대로는 뫼비우스 스타일의 주인공들처럼 영웅 시대의 비극적인 종말에 큰 충격을 받은 젊은이, 이른바 '세기아'이다. 쎄느강에 익사한 후 구조선박의 노에 머리가 깨어진 자신의 모습을 예견하는 라파엘의 환영에서도 나는 조각난 이미지들을 발견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인물의 정신적 분열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골동품상에서 문명의 파편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발작은 라파엘이 볼테르가의 골동품상에서 발견하는 “반동적인 종말론”을 확실하게 묘사한다 :

“그 신원불명의 청년은 순간 문명, 신앙, 이상들, 걸작, 위업, 방탕, 이성과 광기로 가득찬 세계의 방울 바라보며, 각각의 면이 한 세계를 나타내는 다면 거울을 떠올렸다. 이 정체를 모를 인상에 젖은 후 그는 쾌락을 선택하고자 했다. 그러나, 너무도 열심히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었던 까닭으로 그는 위장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기가 빛어낸 열에 눌려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한 인류의 잔존물이 증명해 보여주는 수많은 개인적·국가적 존재를 보자 급기야는 그 젊은이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그를 상점 안으로 밀어넣던 욕구는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이상의 세계를 향해 올라 섰고, 마침내 우주가 조각조각, 불꽃처럼 보이는 환희의 궁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상어가죽』, p. 73

라파엘은 문명의 파편들을 병렬시키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상에 자신을 내맡긴다. 조각난 외부세계는 의식의 파편화로 내재화된다 :

“어둠이 깔리고, 그의 지친 머릿속이 지끈지끈 쑤셔오자 춤추듯 흔들리기 시작한 그 작품들은 그의 앞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며 소용돌이쳤다. 사기인형들은 찌푸린 얼굴을 해 보

였고, 작품속의 인물들은 눈을 감고 눈동자를 식혔다. 각각의 형태들은 그 습성과 성격과 구성에 맞게 가볍게 또는 장중하게 그들의 성격과 구조에 맞게 벌벌 떨다간 뛰어올라서 위치를 옮겼다” 『상어가족』, p. 79

또한 연회 때 라파엘은 유리잔을 산산조각낼 뿐 아니라 모든 확신들까지도 뒤흔들어 놓고자 하는 불완전한 존재들, 이른바 “역설적인 인간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음을 덧붙이도록 하자 :

“그것은 책인 동시에 바로 그림이었다. 철학들, 종교들, 지역마다 너무나도 다른 도덕들, 정부들, 마침내 인간의 모든 위대한 지적 행위가 시간만큼이나 긴 낮에 잘려나갔다. 아마 당신들은 그 낮이 취기오른 지혜에 의해 다루어지는지 혹은 일종의 폭풍이 되어버린 취기에 의해 다루어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해안 절벽에 부딪치는 성난 파도처럼, 문명을 지속시키는 모든 법칙을 뒤흔들고자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 속에 선과 악을 남겨두고서 그 끝없는 싸움의 비밀을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는 신의 의도를 만족시킬 뿐이었다. 우스꽝스럽고 한편으로 분노에 찬 그들의 대화는 지성의 소란과도 같은 것이었다. 신문의 탄생을 맞아 대혁명의 아이들이 나누는 이 슬픈 농담지꺼리와 가르강튀아 Gargantua의 탄생을 맞은 술꾼들의 이야기 사이에는 16세기와 19세기를 갈라놓는 심연이 놓여 있다. 16세기인들은 웃으며 파괴를 준비했고, 우리시대인은 폐허속에서 웃고 있는 것이다”

『상어 가족』, pp.102-103

분열되고 고뇌하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발작적인 인물인 청년 라파엘은 골동품상에서의 경험과 연회 중의 흐려진 정신상태를 서로 연결시킨다.

“취기, 사랑, 환락, 세상에 대한 망각, 이러한 것들이 심장들 속에, 얼굴 위에, 양탄자 위에 무질서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모든 시선 위에 얇은 막을 둘러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안의 공기 속에 취기의 안개와 같은 것을 느끼도록 했다. 그는 흥분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햇살이 그려내는 빛줄기들 속에서, 제멋대로 형태가 변하고 기괴한 싸움이 벌어지는 반짝이는 먼지와 같았다. 여기저기에 엉켜붙은 사람들의 무리가 저택을 장식하고 있는 흰 대리석의 고상한 조각작품들과 혼동되었다”

『상어가죽』, p.122-123

방탕이라는 주제는, 생명력을 아끼려는 골동품상의 세계관에 대립해서, 일단 부적을 손에 넣고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 근거를 둔 세계관을 내세우는 라파엘의 담화 속에 나타난다 :

“나는 포효하는 광적인 방탕이 우리를 사두마차에 실어서 세상너머 미지의 해변으로 데려다 주기를 바란다. 나는 영혼들이 상승 혹은 하강하는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든 진흙 속으로 가라앉든 상관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불길한 능력에게 내가 하나의 즐거움 속에서 온갖 즐거움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명한다. 그렇다. 나는 그로 인해 죽게 될 마지막 포옹 속에서라도 땅과 하늘의 즐거움을 끌어안고자 한다”

『상어가죽』, p.91

나는 뽕생바르 G. Poncin-Bar의 의견을 좇아, 이 텍스트가 보들레르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들레르는 ‘여행 voyage’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두뇌를 지저대는 이 불꽃이 거센 만큼, 심연의 바닥까지 잠기고자 한다. 그 곳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미지의 세계 저 깊숙한 곳에서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라면!”

『악의 꽃』, CXXVI

한편 “그렇다. 나는 그로 인해 죽게 될 마지막 포옹 속에서도 땅과 하늘의 즐거움을 끌어안고자 한다.” 라는 라파엘의 절규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기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자아낸다. 방탕은 당연히 다이유페의 연회에서 술잔치 형태로 나타난다. 라파엘은 피도라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절망때문에 타락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데, 라스피낙은 이 점을 칭찬한다 :

“나는 쾌락으로 존재를 소멸시키는 것보다 나은 것을 찾지 못했네. 자네가 깊은 방탕에 빠진다면 자네의 열정과 자네 자신을 없앨 수 있을 것이네. 절제하지 않는 것이 죽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네. 그것은 순간적인 뇌출혈과 같은 것이며, 뇌출혈은 우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 한방의 권총과 같네. 우리에게 모든 육체적 쾌락을 제공하는 주연은 싸게 산 아편 같은 게 아닌가? 방탕이란 늪은 우리에게 죽도록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술과 치명적인 결투를 벌이는 것이라네. 끌라랑스 공작 Duc de Clarence의 단 포도주가 셰느강의 진흙보다 맛이 좋지 않겠나? 우리가 멧들어지게 탁자 밑으로 나가떨어질 때 우리는 순간적인 가사상태를 경험하는것 아닌가? 만약 순찰대가 우리를 잡아 간다면 우리는 위병소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영안실의 즐거움을 즐길것 아닌가?”

『상어가죽』, p. 203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소 주제인 자살은 육체적 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을 격앙시키는 이러한 성적 욕망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사랑은 금지된 듯 하고 성에 관계된 묘사는 검열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선 발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취기, 사랑, 환각, 세상에 대한 망각, 이러한 것들이 심장

들 속에, 얼굴 위에, 양탄자 위에 무질서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모든 시선 위에 얇은 막을 둘러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안의 공기 속에 취기의 안개와 같은 것을 느끼도록 했다. 그는 흥분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햇살이 그려내는 빗줄기들 속에서, 제 멋대로 형태가 변하고 기괴한 싸움이 벌어지는 반짝이는 먼지와 같았다. 여기저기에 영겨붙은 사람들의 무리가 저택을 장식하고 있는 흰 대리석의 고상한 조각작품들과 혼동되었다.”

『상어가죽』, pp.122-123

여기서 우리는 “영겨붙은 사람들”의 무리와 흰 대리석상들의 묘한 배합에 주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쓰인 이미지가 아니다. 창녀 아킬리나는 “옛 그리스의 어느 신전에서 떨어져 나온 커다란 조각상”이다. 그리고 라파엘은 온화한 뿔린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아! 비단 위에서, 캐쉬미어천 위에서, 놀랄만큼 사치스러운 것들의 화려한 장식에 둘러싸인 사랑이여!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하나의 사치이기에. 나는 말쑥하게 화장을 한 얼굴을 보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망쳐버리고 싶다. 또, 꽃을 꺾고, 향기나는 우아한 머리결모양을 헝클어 버리고 싶다. 대포의 연기 사이로 뿔어져 나오는 불꽃처럼, 망사로 된 베일 사이로 바라보는 불타는 듯한 두 눈,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매력을 준다. 나의 사랑은 겨울밤, 조용히 올라갈 수 있는 비단 사다리를 원한다. 눈에 덮힌 채 무늬가 그려진 비단 양탄자가 깔린 향기 가득한 방에 도착해서, 나와 같이 몸에서 눈을 털어내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는가? 잠시 후면 벗을, 구름 속의 천사와 같은 몸의 곡선을 어렴풋이 비추어 주는 그녀의 육감적인 모습린 옷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

『상어가죽』, p.150

백작부인 피도라의 침실에 숨어든 라파엘은 그녀의 모습에서 “얇은 베일 밑에서 빛나는 은조각상”을 발견한다. 그 여인의 이미지는 웅크린 것처럼 보이며, 그것은 명백히 불길하다. 아킬리나는 “깨물고 쓰다듬을 줄 아는 괴물”로 나타나고, 피도라의 이미지는 라파엘에게 상상의 괴물을 환기시킨다.

“나는, 때로는 사나운 말을 길들이는 사관과도 같고, 또 때로는 화장을 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처녀를 절망케 하는 남자처럼 연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처녀같기도 한 괴물을 본 것 같았다.” 『상어가죽』, p.183

그런데 라파엘은 육체적 합일을 갈구한 것일까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을 추구한 것일까? 그는 뿔린느 속의 누이같은 측면을 존중한다. 한편 그는 “궁핍 속에서의 사랑은 생각하지 못한다.” 귀족부인으로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장벽을 쌓고 있는” 피도라는 사랑의 반을 이루고 있는 그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준다. 후에 라파엘은 피도라와 자신 사이에 친밀감같은 것이 생겼을 때 자신이 그녀의 육체를 거부했다고 라스피낙에게 털어놓는다 :

“우리는 10분 정도 깊은 침묵 속에 있었어. 나는 그녀에게 있지도 않은 매력을 갖다 붙이며 칭찬했지. 그때, 그녀는 나만의, 나만의 것이었어. 마치 그러한 일이 이미 허락되어 있었던 듯이 나는 직감적으로 그 매혹적인 창조물을 소유했음을 알았어. 나는 욕망에 넘친 상상 속에서 그녀를 감싸안고, 그녀를 품에 꼭 껴안았어. 상상을 통해 그녀와 결혼한 거지. 나는 마침내 자력과 같은 매력으로 그녀를 정복한 거야. 사실 그 여인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다고 언제나 속상해 했었지. 그렇지만 이순간 내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육체가 아니야. 하나의 영혼, 하나의 생명, 오래도록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아름다운 꿈, 그런 이상적이고 완벽한 행복을 희망했던 거야.” 『상어가죽』, p.198

그녀를 떠나며 그는 정면으로 그녀를 모욕한다 :

“당신은 신을 모욕하는군요. 벌 받을 것입니다. 어느날 당신은 침대에 누워 빛도 소음도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면서, 무덤 속과 다름없이 살도록 저주받아, 일찌기 들어보지 못한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 서서히 다가오며 복수하는 듯한 고통의 이유를 찾을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행적 위에 그토록 넓게 뿌려놓은 불행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도처에 그러한 저주의 싹을 심어놓았기에 그 댓가로 증오를 발견하겠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판관이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들의 정의를 초월해 신의 정의 아래로 수렴되는 그런 정의의 집행자입니다”

『상어가죽』, p. 200

라파엘이 피도라의 가슴 아래 하반신에 대한 묘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심리의 의미심장한 한 부분이 아닐까? :

“좀 더 명확히 나의 생각을 설명하면 피도라에게는 가슴께에서 분리될 수 있는 두 여자가 있다. 한 여인은 머리로만 사랑을 하는 차가운 여인이다. 그녀는 남자에게 눈길을 보낼 때 미리 어떤 눈길을 보낼까 준비하는데...”

『상어가죽』, p. 160

라파엘은 욕망과 쾌락에 겁을 집어먹고 있는 듯하며, 이러한 콤플렉스와 자기 억압이 그의 이야기를 검열한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냉정한 여인인 피도라와 온화한 불린스가 대립된다. 그러나... 라파엘을 보살피면서 피도라를 얻으려는 그의 투쟁을 연민을 가지고 지켜보던 불린스는 이렇게 말한다 :

“당신은 부유한 여인과 결혼할테죠. 그렇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슬픔만을 줄 거예요. 아! 그녀는 당신을 죽이게 될 거예요”

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외침에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터무니없는 미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당신은 단단히 그걸 믿고 있군요, 뽀린느. -아! 그렇고 말고요. 당신이 사랑하게 될 여인이 당신을 죽게 할 거예요. 그녀는 나를 공포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상어가죽』, p.188

그러나 몇달 후, 부자가 된 그녀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초췌해지고 폐인이 된 라파엘, 악마적인 계약으로 부적에 매여있는 그 라파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된것은 다른 아님 그녀 뽀린느였다. 라파엘은 착란과도 같은 사랑을 마구 쏟아놓는 듯 하다 :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에서 라파엘은 뽀린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뜨겁게 마치 발작과도 같이 극렬하게 그 손에 키스를 퍼 부었다”

『상어가죽』, p.244

그녀는 점차 사랑으로 라파엘을 죽인다 :

“그녀는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강렬하게 라파엘을 안고, 나른한 관능미가 섞인 애교를 부리며 키스를 하기 위해 붉은 입술을 그에게 가져갔다. -오! 나의 천사. 당신의 창백한 모습을 보며 난 당신을 잃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어요. 당신의 생명은 나의 것이기도 해요. 나의 라파엘, 내 등 위에 당신의 손을 올려 주겠어요? 당신의 손에서 여전히 작은 죽음이 느껴져요. 차가워요. 손에서 작은 죽음을 느끼지요. 당신의 입술은 뜨겁군요. 그런데 당신의 손은?...얼음장 같아요. - 터무니 없는 소리! -왜 눈물 짓는 거예요? 당신의 눈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 아! 뽀린느,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군요. - 당신에게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비밀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내게 줘요. 뿔린느는 상어가죽을 집어 들고 말했다. - 내가 나를 죽이는구나. 라파엘은 그 부적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며 소리쳤다.” 『상어가죽』, p.252

흡혈귀처럼, 마녀처럼 그녀는 라파엘의 눈물을 마신다. 소설의 종말에서 그녀는 자신이 예언한 말들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뿔린느는 피도라의 본성을 공유하는가? 두 인물 사이에 어떤 등가성이 존재하는가? 나는 등가성이 이 소설의 기본적 구성요소라고 생각한다. 골동품상은 하느님과 메피스토펠레스를 동시에 육화한 인물이고, 상어가죽과 예수의 초상은 골동품 상점에 마주 놓여있다. 신비로운 부적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얼굴에서도 광원이 발견되는 것이다. 피도라의 얼굴은 빛을 낸다 :

“빛이 그녀와 하나가 되어 그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또는, 그녀의 빛나는 모습으로부터 빛 자체보다 더 밝은 빛이 뿔어나오는 듯 했다” 『상어가죽』, p.163

그리고 결투 장면에서의 라파엘은 죽음을 가져오는 빛을 뿔어대는 검은 태양이 될 것이다.

예견된 죽음은 선택의 가능성을 없애 버리고, 선택의 대상들은 모두 동등한 것이 된다 :

“멍청이! 라파엘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간단히 말하게. 책을 쓰려 하나. 내가 그 두가지 사상을 적절히 표현할 작정이었다면, 인간은 이성의 훈련에 의해서 부패하고, 무지에 의해서 순화된다고 말했을 거야. 그것은 사회 자체를 소송에 거는 것이지. 우리가 현명한 이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미친놈들과 함께 멸망하든, 결과가 늦거나 빠르다 뿐이지 똑같은 것 아냐?” 『상어가죽』, p.124

철학적 영역에서 두드러진 동등함의 체계는 정치적 관습 또한 지배

한다:

“천주교가 수많은 우상들을 밀가루 푸대 안에 봉해 버리고, 공화정이 나폴레옹같은 자로 항상 귀착된다고 해서, 또 왕정이 앙리 4세의 암살과 루이 14세의 분별력 사이에 위치하고, 자유주의가 라파이에뜨 La Fayette로 귀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잘못이란 말인가?” 『상어가죽』, p.109

바로 이러한 것이 언론기관의 설립자이자 재평가인 파이유페의 파티에 참석한 어떤 신문기자의 말이다. 동가의 공식들은 역설의 공식들에 가깝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

“여보게, 하지만 국민의회가 올바른 조세 집행과 법률에 통일성을 주고 프랑스를 자국민화하며, 조상의 유산을 공정히 배분하기 위해 뺏은 목숨보다, 루이 14세가 땀땀 Maintenon의 수로를 파기 위해 뺏은 목숨이 더 많지 않았나? 자신의 이름 앞에 귀족을 나타내는 “de” 한 마디가 없다는 이유로 공화주의자가 된 ‘마쉴 Massol’이란 젊은이가 말했다.” 『상어가죽』, p.104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뿌리깊은 염세주의와 환상없는 역사관을 보여주며 절망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당신들이 옳아요. 아스파라가스 좀 이리 건네 주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 자유는 무정부주의를 낳고, 무정부주의는 독재를 낳고, 독재는 자유로 귀결되니까요.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들 중의 어떠한 것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죽었지요. 이것이 정신세계가 끝없이 공전을 거듭할 악순환이 아닐까요? 인간이 완벽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 그간 한 일이라곤 사물들의 위치를 조금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하지요” 『상어가죽』, p.105

처음부터 7월 왕정은 발작과 그의 동시대인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평준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

“헌법의 직접적인 결과는 지식인들을 제압한 것이지요. 예술, 과학, 기념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문둥병같은 끔찍한 이기주의가 삼켜버리죠. 당신네 300명의 부르조아들은 의석에 앉아서 포플라 나무를 심을 궁리나 할겁니다. 독재정치는 부당하나마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지요. 그러나, 자유는 정당하다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상어가죽』, p.107

결론

『상어가죽』을 통해, 발작은 확장을 거듭하는 산업으로 인해 동요하는 근대사회의 위기를 포착하고자 했다. 그 시대는 사회적으로는 당시 위험한 계층으로 여겨진 노동자 계층의 형성, 정신적·지적으로 는 만연하는 물질주의에 의해 동요되었다. 발작은 이러한 위기를 상당히 동양적이면서도 그 시대의 현실에 굳건한 바탕을 둔 이야기를 통해 표현했다. 파우스트적인 영감에서 비롯된 이 환멸의 소설은 그의 가장 개인적인 관심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작가 그 자신이 바로 상상력이란 스크린 위에 세계를 옮기고자하는 골동품상인 동시에, 창조 의 열망에 의해 점차 파멸해가는 존재가 아닐까? 이것이 바로 발작이 시인했던지, 시인하지 않았던지 간에, 이 소설의 중심에 위치한 상징에 활력을 주는 밑도있는 사상들이다.

<지현 역>